

불분명한 국유지가 주민의 안전 거점으로




- 국유재산 내 공공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로 자치방법대 초소 설치 추진 -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18조 의거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공공시설물(자치방법대 초소 등) 설치 제한 ○ 규제 완화를 통한 국유지 활용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과·재산관리관·경찰서 등 유관기관 실무 협의 ○ 「국유재산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국유재산 내 임시 공공시설물(공공용 컨테이너 등) 설치 규제 완화 정책 제안 - 자치방법대 초소와 같이 공공 목적성이 명확하고, 설치 위치가 국유재산 내 공공시설 부지인 경우 설치 허용 - 관리책임 명확화 및 필요시 사후 철거 조건으로 사용허가 ※ 유사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호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설치 통해 지역 치안 강화 등 다양한 목적 달성 가능 ○ 사용 목적 불분명한 국유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 실효성 제고 ○ 중앙정부·지자체 간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
업 무 담 당 자	추진과정 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취지인 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시설 설치의 필요성 사이 이익형량이 어려워 개정 지난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에 법령 개정 요청

선유교 전망대(스카이워크) 가는길 안전 확보로 관광객 늘리다 !

- 선유교 안전 개선 사업 추진 -

	<p>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고군산군도 특히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 중 다수가 선유교 전망대(스카이워크)를 찾고 있으나, ○ 전망대를 가는 선유교 난간이 노후되어(1986년) 교량을 통과하는 관광객이 위험한 상황으로 안전확보를 위하여 난간 보수가 필요한 상황
<p>사 례 내 용</p>	<p>추진 내용</p>	<p>【 선유교 안전 개선사업 추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 안전난간 교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50백만원) 신청 및 사업비 확보 ○ (행정절차이행) 추경성립 전 예산 반영을 통하여 공사 발주 시기 앞당겨 공사 시행 ○ (공사 발주) 2024.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개요 : 안전난간 교체 L=533m - 공사기간 : 2024. 11. 20 ~ 2025. 06. 30. - 공 사 비 : 200백만원(도급 53, 관급 147) <p>【 부서협업과 예산절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협업) 폐상수도관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도과와 협업을 통하여 폐상수도관 철거 조치 ○ (예산절감) 1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하부 한전 배전선로 이설관련 원인자부담금 고지(113백만원) - 현장행정을 통하여 한전시행 논리개발과 설득을 통해 한전시행
	<p>주요 성과</p>	<p>【 안전성 확보 】 선유교 안전 개선사업으로 선유교를 통과하는 보행자 <u>안전성 확보</u>로 전망대(스카이워크)를 찾는 <u>관광객 증가 기대</u></p>

	전 	후 
주요 성과	선유도 전망대(스카이워크) 	
	<p>【 부서협업 】 고군산연결도로 개통(2018. 12월) 이후 상수도 공급으로 장기간 방치된 폐상수도관을 수도과 협업을 통하여 철거함으로써 교량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p> <p>【 예산절감 】 113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간 교체에 저축이 되는 한전 배전선로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고지(113백만원) 하였으나 -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한전시행 논리개발과 설득을 통해 한전에서 이설공사 시행함으로써 이설공사비 절감 효과 	
추진과 정에서 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관련) 난간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 미확보 ○ (공사관련) 현장조사 결과 난간 교체에 따른 지장물 다수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상수도관, 한전 배전선로 등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관련) 보행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계 협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 	

<p>극복 노력</p>	<p>○ (공사관련) 지장물 관리기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철거 또는 이설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과 : 현장확인 후 폐상수도관 확인 및 철거방법 등 협의 - 한전 군산지사 : 지장 배전선로 이설 협의 <p>(당초) 원인자부담에 의하여 군산시에서 배전선로 이설비 부담 (협의후) 군산시에서 배전선로 이설가능토록 고정받침만 설치 후 한전에서 선로 이설공사 추진</p>
<p>기타 에피 소드</p>	<p>○ 공사 시행전 자전거 이용 관광객이 전망대(스카이워크) 인근 위치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추락할 뻔 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공사 시행전까지 임시 통제</p> <p>○ 공사 완료 후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지날 수 있고 선유교 미관 개선으로 관광객에게 군산시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됨</p>

부리깊은 불법 적극행정으로 부리 뚫다 !

- 구시청광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철거 -

<p>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시청광장은 이성당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나 컨테이너가 주변 건물의 전기로 내부에서 난방기를 사용하고, LPG 가스도 사용하는 등 화재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음 ○ 공영주차장 컨테이너가 미관을 해치고(군산시 이미지 하락), 점유자가 타이어로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음
<p>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현장 확인(2025. 2. 26.) ○ 공유재산 실태조사(2025. 3. 19.), 처분의 사전통지(2025. 4. 9.) ○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2025. 4. 21.) - 3,129,340원 / *5년까지 소급 부과
<p>사례 내용</p> <p>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시청광장 내 불법건축물(컨테이너) 자진 철거 완료(2025. 6. 1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후</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후</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 과정 에서 의 어려 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2월 26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로 11-1 구두병원 컨테이너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 요청 - 군산시 땅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건지 확인 요청 - 컨테이너 주인이 공영주차장 주차 칸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길에다가 타이어를 세워놔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해결 요청 ○ 위성사진 확인 및 현지 출장 결과 컨테이너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뒷 건물의 전기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난방기를 틀고,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라바콘 등을 놓아 시민의 주차면 및 도로 사용을 방해하고 있었음 ○ 이에 수차례 찾아가 라바콘 타이어 등을 직접 치우고, 점유자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해야 함을 설득함. 그러나 점유자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오히려 “본인이 고령으로 구두병원 영업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냐”며 담당자를 설득하려고 함. 또한 본인이 국가유공자이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문의하여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함 ○ 이후 행정대집행 및 고발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도 고발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컨테이너 철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며, 점검을 나가서 라바콘 등을 직접 치워주어도 점검을 나갔을 때만 잠깐 치우고 다음날 다시 갖다 놓아 계속해서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함
<p style="text-align: center;">극복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질긴 점유자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월명동 도시재생시설 점검을 할 때마다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라바콘, 타이어 등을 직접 치우고, 컨테이너를 철거하도록 설득을 반복함

업무 담당자



- 처분의 사전통지서 우편송달 하지 않고 직접 교부송달함
 - 사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여 패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사전통지서)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 방지함
 - 행정처분 공문의 내용(변상금 산출 내역, 변상금 미납 시 체납처분, 행정대집행, 고발 등의 절차)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함.
 - 이 과정에서 가족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자녀와 통화할 수 있게 되어 변상금 부과와 컨테이너 철거의 당위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자진 철거에 도움이 되었음
- 원칙을 고수한 행정 처분
 - 변상금 부과(3,129,340원 -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변상금 부과함)
 -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미납 시 컨테이너 철거 시까지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
- 강력한 행정 대응과 가족들의 설득으로 2025. 6. 10. 자진 철거 완료

기타 에피소드

- 처음에는 노인(만 80세)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까, 어르신들 모임의 장소를 없애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스쳐갔으나, 관계법령 검토 과정에서 변상금 부과는 기속행위로 반드시 해야하는 일임을 깨닫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본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보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개인의 이익보다 철거 시의 시민의 이익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공유재산을 수호한다는 마음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추진함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물고 군산의 미래를 쌓아올리다

- 군산대학교 지역 연계 복합센터 사업 -

	<p>추진 배경</p>	<p>○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전북 도내 최초로 군산시 대학협력계 신설</p> <p>○ 시 직영 수영장 폐쇄로 수영장 시설 구축의 필요성 대두 ※ 월명수영장 안전진단 E등급으로 폐쇄(2024.2월) 조치</p> <p>○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필요성 증가</p> <p>○ 스포츠 및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공간 필요</p>
<p>사 례 내 용</p>	<p>추진 내용</p>	<p>○ 2024. 2월: 월명수영장 폐쇄로 수영장 건립 필요성 제기</p> <p>○ 2024. 2월: 군산대학교와 지역 연계 복합센터 사업추진 협의</p> <p>○ 2024. 2월: 『지역 연계 복합센터』시설 관련 부서 수요조사 추진</p> <p>○ 2024. 2월: 업무조정 회의 추진(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아동정책과)</p> <p>○ 2024. 3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p> <p>○ 2024. 3월: 시의회 간담회 개최</p> <p>○ 2024. 3월: 교육부 국립대학교 신규 시설확충사업 신청 및 예비 선정</p> <p>○ 2024. 3월: 지역 연계 복합센터 사업추진 TF팀 구성</p> <p>○ 2024. 5월: 교육부 국립대학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참석</p> <p>○ 2024. 6월: 교육부 신규사업 본 선정</p> <p>○ 2024. 9월: 군산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2025년 본예산 반영계획 수립</p> <p>○ 2024. 9월: 군산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p> <p>○ 2024. 10월: 군산시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p> <p>○ 2024. 12월: 군산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국회 최종확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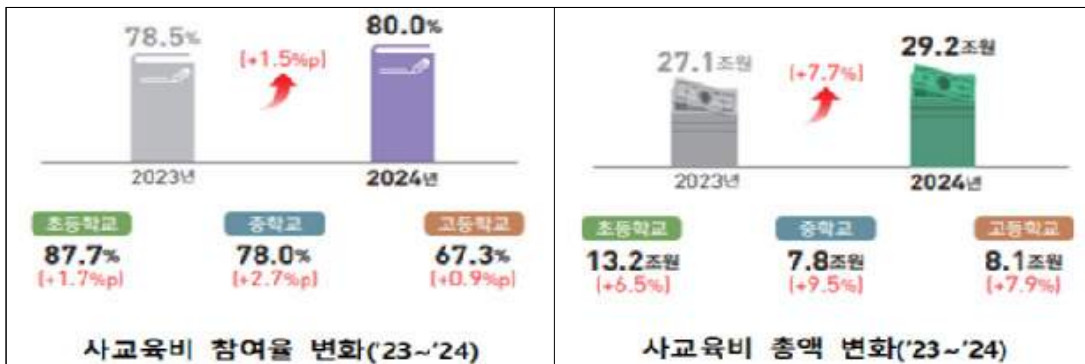
- 국립대학교 시설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대학교 유휴부지에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부지 매입비 절감 및 국비 예산 확보**
 - 총사업비: 31,577백만원(국비28,402, 시비3,155)
 - ※ 사업비 매칭비: **국비(교육부) 90%**, 지방비 10%
 - (군산시) 지역연계복합센터 총사업비의 10% 부담
-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 복지 시설 확보**
 -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
 - 아이와 함께할 공간 조성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 실내놀이시설
 - 기후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야외활동을 대체할 실내 체육시설



주요 성과

※ 디지털 스포츠 수요조사: '23.1.19.~ 26, (대상) 지역주민 83명, 대학구성원 148명

○ **대학의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 사교육은 늘고 있으나,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교육격차 발생
- 대학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예체능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배움터 사업 추진

○ **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대학교 수영 교과목(프로그램)을 정규 및 교양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요원, 수영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 ※ 관내 수영장 안전요원 모집 시 15차례 공고 등 인력 충원의 어려움 호소

추진
과정에서
의
어려움

- 대학교 시설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대학교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간 구성 및 시설 운영 관련 협의 난항**
- 시설별 관리주체가 달라 부서 설득의 어려움
 - 수영장(체육진흥과): 운영비 과다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계획에 **없던 수영장 신축 반대** ⇒ 문화관광국장 업무조정으로 설득
 - 유아놀이시설(아동정책과): **유아 놀이시설**은 시설 구축을 하더라도 내부 시설의 유행이 민감해 잦은 교체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반대
 - ⇒ 복합센터 **1층 수영장, 2층 거점형 놀봄센터로 사업 계획**
 - ⇒ 거점형 놀봄센터 조성 관련 의회 반대(기존 놀봄센터 운영률 저조)
 - ⇒ 아동정책과 설득하여 **유아 놀이시설로 재변경**

업무
담당
당
자

극복
노력

- (시설운영) **군산대학교와 지역 연계 복합센터 사업추진 TF팀 구성**
- **시설 및 공간별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하고 대학에서 행정 및 전문인력(체육학과 등) 지원 협의**

층별	세부용도	면적(m ²)	사용자	관리주체
4층	디지털 스포츠 교육센터 ※ 헬스케어, 체형분석, 디지털스포츠(스크린 골프, 클라이밍 등)	1,790	시민/대학	대학교
3층	다목적 체육시설 (체력단력실 등)	1,790	시민/대학	
2층	유아 놀이시설	1,500	시민/대학	군산시
1층	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지도실 등)	2,100	시민/대학	
지하 1층	기계실 등	820		
합계		8,000		

- (사업신청) **문화관광국장 업무조정 회의**
- **시설 운영 부서를 수시로 찾아가 설득했으나 부서별 의견 갈등 ↑**
- 수영장 건립 비용 **120억원 이상** 소요
- 복합센터 사업추진 시 **31억원 매칭으로(90억원 절감) 수영장, 유아 놀이시설, 디지털 스포츠 시설 확보 설득**
- 복합센터 사업추진 시 **운영부서 의견 최대한 반영 협의 후 사업 신청**

기타
에피
소드

- 2024년 1월 조직개편, 전북 지자체 최초로 대학협력계 신설
【교육지원과, 군산대학교 간담회】
 - 월명수영장 폐쇄로 수영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 동향 파악
 - 대학 내 수영장 부재로 체육 및 해양학과 학생 교육 곤란
 - 2024년 2월 군산대 국립대학교 시설 확충사업 예비 신청 공문 접수
 - 총사업비 10% 지방비 매칭으로 수영장 건립 가능 확인 후,
군산대학교와 사업추진 논의 시작
 - 우리시 수영장과 유아 놀이시설 관리부서의 반대 직면, 수차례 설득과 문화관광국장 업무조정으로 사업 신청
 - 2024년 5월 우리시 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등 『국립대학 신규사업 심의위원회(서울)』 참석하여 **심의위원 및 교육부 설득**
 - 12월,【군산대학교 지역 연계 복합센터】교육부 신규사업 최종 선정
 - 2025년 5월부터 【군산대학교 지역 연계 복합센터】 구축 이후를 **대비하여 대학교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배움터 사업 추진**
 - (디지털피아노, 어린이 드럼 스쿨) 이음버스 운영을 통해 평일 하교 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아이들을 데려와 수업 후 귀가 지원
 - (명품스포츠 클래스) 토요일 오전 9시~12시(3시간 운영) 1시간 골프, 1시간 디지털 클라이밍, 1시간 디지털 게임 참여를 통해 거북목, 어깨높이 등 신체 측정을 하고 자세 교정 및 피트니스
- ↳ **수강료 무료!!** 타시군에 적용가능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우수사례**

【분야별 시민 반응】

수요자 관점	수혜자 관점	운영자 관점
초등학생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대학배움터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전용 버스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00초 교장선생님 대학배움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역대학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되면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죠	군산시 관계자 복합센터 조성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우수사례로 생각합니다. 대학의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총사업비의 10% 투입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영장과 유아놀이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니 기대가 큼니다.
대학생 수영 수업을 위해 매번 버스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고 수업 일정이 자주 변동되어 불편했는데 대학교 안에 수영장이 생긴다니 기대됩니다.	학부모 군산에 이런 복합시설이 생긴다니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대학배움터는 방과후 학습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학습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관계자 지역과 대학이 역량을 공유하며 상생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군산대는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합센터를 설치하였고, 이는 지역 인구 유출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군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 출처: 『군산대학교 지역 연계 복합센터』 기대효과 조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 알쓸신잡 정리정돈 사업 -

사 례 내 용	<p>○ (건보공단) 강박장애 환자 수 매년 증가 ⇒ '18년 28,187명→'22년 40,042명(42% 증가)</p> <p>○ (사회적 문제) 물건들의 수집하고 축척함으로써 주거 공간, 활동 공간 등이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되고 어수선한 상태가 되어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건강 및 안전, 고립의 문제 발생 ⇒ 아동의 발달지연, 학대 및 방임 등</p> <p>○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2022~2023년(2년) 청소방역 프로그램을 사례관리 대상 10가정을 선정하여 청소업체에서 1회성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했으나 개선 및 지속 효과가 떨어짐 ⇒ 프로그램 개선 필요</p> <p>○ (알쓸신잡 정리정돈 사업계획) 지역내 자원 개발 및 연계를 통해 7개 기관이 업무협약하여 연간 6가정(가정당 3회기)을 청소 및 정리정돈, 사후관리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함</p>																		
추진 내용	<p>□ 사업개요</p> <p>○ 운영기간 : 2025. 3 ~ 12월</p> <p>○ 사업대상 : 연간 6가정 (상반기 3, 하반기 3)</p> <p>○ 운영방식 : 통합사례회의 후 대상가정 결정(가구당 총3회기/매회기 3시간)</p> <p>○ 사업내용 : 쓰레기 청소, 정리정돈 기술(방법) 교육, 정리수납 업무지원</p> <p>○ 사업예산 : 8,025천원(인건비 및 재료비 포함)</p> <p>○ 상반기 추진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355 1809 1436 1955"> <tr> <td>관계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td> <td>→</td> <td>사업계획 수립</td> <td>→</td> <td>통합사례회의 및 대상자 선정</td> <td>→</td> <td>사업 실행 (상반기: 3가정)</td> <td>→</td> <td>사후관리 및 결과 보고</td> </tr> <tr> <td>2월 중</td> <td></td> <td>2월말</td> <td></td> <td>3월, 4월, 6월</td> <td></td> <td>3월~6월</td> <td></td> <td>7월</td> </tr> </table> <p>※ 대상가정은 사전.사후검사(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해 효과성 평가</p>	관계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	→	사업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 실행 (상반기: 3가정)	→	사후관리 및 결과 보고	2월 중		2월말		3월, 4월, 6월		3월~6월		7월
관계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	→	사업계획 수립	→	통합사례회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 실행 (상반기: 3가정)	→	사후관리 및 결과 보고											
2월 중		2월말		3월, 4월, 6월		3월~6월		7월											

주요
성과

■ 사례A

- 가구형태 : 한부모가정(3인가구)
- 주호소 문제 : 모의 우울과 공황장애로 정리되지 못한 집에서 일상 생활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새로 구입하는 등 물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계속됨



- 사전.사후 비교 : 우울검사(16→9)와 스트레스 지수(33→21)가 많이 개선됨

■ 사례B

- 가구형태 : 한부모가정(4인가구)
- 주호소 문제 : 모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불안, 우울, 공황장애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고,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쌍둥이 형제와 어린 딸, 총 3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



- 사전.사후 비교 : 우울검사(23→14)와 스트레스 지수(31→23)가 많이 개선됨

■ 종합의견

- 사례A와 사례B 모두 “알쓸신잡 정리정돈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타인에게 집을 공개하지 않았던 세대가 개방을 하면서 고립과 방임의 문제도 일부 해결됨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발굴시, 알쓸신잡 정리정돈사업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집안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수집강박증이 심한 세대의 경우, 쓰레기와 청소를 할 때 당초 약속과 달리 버리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어서 설득하는데 많이 힘들었음
업무담당자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사례마다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업의 협약기관(앳홈, 자원봉사단체)와 유관기관(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참여로 사례에 대한 이해와 가정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개입하였음.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해결(가구 및 서랍장 구입, 공부방 꾸미기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었음. ○ 또한, 갑자기 바뀐 주거환경에 낯설어 하거나 오랜 수집강박증이 있는 세대의 경우, 쓰레기 정리시 천천히 수용할 수 있도록 3회기(회기당 3시간)에 걸쳐 정리하고 정돈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유도함. ○ 대상 아동도 정리수납 과정을 직접 참여하게 하여 청소가 노동이 아니고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양육자와 함께 스스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킴⇒ 매 회기마다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에피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의 청소나 정리정돈이 아닌 사례 대상 가정의 아동과 양육자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참여자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스스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임. ○ 연2회 정리정돈 집단교육을 통해 촘촘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함

군산을 전국에 각인시키다 !

- 재미로 시작해 시선을 사로잡다, 군산 홍보영상의 변신 -

소 속		공보협력과 미디어홍보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홍보 방식의 한계 트렌드에 맞춘 홍보로 변화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전달 위주의 카드 뉴스 및 단조로운 영상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의 비효율성 - 최근 재미 추구와 이를 공유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음에 따라 기존 제작 방식에서 시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함
	사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기획부터 편집까지 원스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부터 제작 편집까지 군산시 홍보 콘텐츠 원스톱 제작 (시책, 관광, 축제 등) - 단순 제작을 지원 수준을 넘어 주도적인 콘텐츠 기획·운영
	추진 내용	<p>[활용할 수 있다 생각되면, 일단 공유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간에 SNS 트렌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인스타그램 샷폼 등 홍보 활용 가능 사례 발견 시 즉시 공유 - 콘텐츠 아이디어로 전환할 수 있을지 팀 내 의견 교류 및 검토 ○ 시정 관련 주제를 적극 콘텐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관심 이슈나 주의사항 등 실생활 밀접 주제 선제 기획 - 기존 정책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재미·공감 유도형 콘텐츠 지향 ○ 시정 홍보 브랜딩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채널 정체성과 콘텐츠 스타일 정립에 기여 - 홍보팀 내 자발적 아이디어 공유 및 실험 문화 형성 주도
	팀 노력	<p>[A 주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촬영 등 다양한 촬영기법 및 편집 방식 적극 시도 - AI 기반 모션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의 시각적 완성도 강화 → 시정 영상의 품질과 주목도를 동시에 높이는 기술 중심 제작 주도

[B 주무관]

- SNS 실시간 업로드와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참여 유도
- 단순 자료 제공을 넘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이미지 재구성

○ **유행하는 영상을 패러디하여 시정 홍보 효과 상승**

주요
성과

		
<p>군산짬뽕 춘장찍녀 Burning slow</p>	<p>#챌린지 모르는 과장님 속 이기 #김미더머니</p>	<p>#군산비어포트 🍷 재개 장! 맥덕들 모여라 🍷 ...</p>
<p>조회수 : 16만</p>	<p>조회수 : 47만</p>	<p>조회수 : 6만</p>
		
<p>#꼭삭속았수다 in 군산 여기서 찍었다고요?!</p>	<p>3초만에 주인공이 바뀌는 레전드(가 되고싶은) 영...</p>	<p>투표 날 듣는 가장 공포스 러운 말 Top.4</p>
<p>조회수 : 31만</p>	<p>조회수 : 28만</p>	<p>조회수 : 663만</p>

○ 타 부서의 협업 요청 증가

○ 군산시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팔로워 급증

▶ **전체 팔로워 수 17,000여 명, 올해 상반기 10,000여 명이 증가함**

- 최근 이슈가 된 선거 주의사항 안내 콘텐츠 (5. 27. 게시) 게시 후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 유지

구 분	게시 전	게시 후	증 감	비 고
유튜브	13,839	16,177	2,338	
인스타그램	13,679	19,157	5,4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 이미지의 긍정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유연하고 친근한 소통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 “군산에 놀러 오고 싶다”, “군산 잘한다” 등 홍보영상은 물론 우리 시에 대한 칭찬 댓글 증가 ○ 군산시 스타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화제가 된 선거 주의 사항 영상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며 이전 영상들까지 호평을 받음 제2의 총주맨이라는 군산 스타 탄생
업 무 담 당 자	추진과정 에서의 어려움	<p>[홍보영상 제작 자체에 대한 고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목적과 재미의 균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정보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짐. 이에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어려움 - 공적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내용, 표현, 이미지 사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제작해야 함.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 특정 단체 특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기획 단계부터 제약이 많고,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작 과정이 길어짐 ○ 출연자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제작 시 SNS 등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출연자를 섭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서에서도 홍보 영상 제작 요청을 하지만 출연은 꺼리는 것이 현실

<p style="text-align: center;">극복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제작 단계에서 표현 수위·정책 중립성 등 다각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협의 및 제작 중 피드백 수용을 반복하며 기준 충족 - 민감 요소 사전 차단 위해 자율적 점검 지속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구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딱한 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유머·참여 요소 반영 - 공공 메시지는 왜곡 없이 유지하여 균형 추구 ○ 품격 있는 영상 완성 위한 제작 품질 향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자막, 그래픽 등 세부 요소까지 꼼꼼히 검토 - 공공기관 영상에 걸맞은 신뢰도와 완성도 확보에 집중 ○ 공식 SNS 및 콘텐츠 활성화에 따라 참여도 증가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에피 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한마디의 나비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제작의 시작은 '이거 어때?!'이다 우리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멀리 나가지 않는다 커피 타임의 농담 한 마디, 지나가는 말처럼 들린 이야기가 어느새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 모든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제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보협력과'라는 부서명답게 모두가 콘텐츠에 진심이다 - 부서원들의 적극적 출연과 섭외·참여 노력이 더해지고, 결재권자들의 제재 없이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 열린소통과 제작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구성원들의 실행 능력이 더해져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노점 철수 유도하여 지속적인 단속 민원 해소

소 속		건설과 도로관리계 ↔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전종합시장 일대는 새벽 시간부터 활기를 띠는 재래시장 특성상, 노점들이 도로와 인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주변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갓길에 나서는 어린이들이 좁아진 보행로와 차량 통행 사이를 오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사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장 보도에 위치한 노점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매일 07:00부터 어린이 통학시간 08:00 전 노점을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노점상인들 대상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보단 자발적 철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군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새벽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 도로관리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07:00부터 인도 및 차도에 위치한 노점대상 어린이 통학시간 전 자발적 철수를 유도 □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07:00부터 역전종합시장 주차장내 노점대상 자발적 철수를 유도하여 도로부지 내 노점상 대상 단속민원을 해소, 행정의 일관성 제고.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01. 01.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중앙초등학교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함(진행중) - 어린이 안전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노면표시 및 안내판 제작설치 등-'26년 본예산 편성 예정)

업무담당자	추진 과정에서 의 어려움	○ 도로법 제117조 의거 일시적치(노점)에 대한 과태료 단속 시 군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새벽장의 명맥을 위협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보단 상인들과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필요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가 심각함
	극복 노력	○ 강력단속을 통한 노점을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보단 상인들과 화합하여 자발적인 철수를 유도
	기타 에피 소드	○ 지속되는 계도 단속에 피로함을 느끼는 도중 학부모 및 통학 어린이, 또한 도로 이용객의 감사인사에 공적 사명감 및 행정 보람을 체감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을 현장행정으로 해결하다

-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 침수개선공사 사업 -

소 속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사 례 내 용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도심지 극한호우 발생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인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의 침수개선 및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해결책 모색
	사업부문	○ 우기철 상습적인 침수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문제를 최소화 하고자 구보건소 사거리 우수관로 현황 분석 및 지형적 특성 파악을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우수박스 내부를 육안 조사 실시하는 등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우문현답의 원칙을 갖고 사업을 추진함
	추진내용 팀노력	<p>[A 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공사현장 경험과 다양한 업무추진 이력을 통한 기술적 조언 ○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 과거 방재사업 업무경험에 근거한 경험치 데이터 제공 <p>※박진식 계장 주요 추진업무(우수저류조,배수펌프장,재해위험지구,재난상황실 등)</p> <p>[B 주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 우수박스 내부 육안조사 추진 ○ 우수관로 CCTV자료 분석 및 현장내부 문제 파악 ○ 자체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안 도출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기철 우수관로 내부 우수 유입량 증가로 인한 병목현상 개선 ○ 우수배제계획 변경하여 우수분산 이송 ○ 우수박스 내부 관보호공(웨어) 철거 ○ 우수박스 및 우수관로 통수단면적 확보 ○ 극한호우시 초기우수 배제능력 확보 	

업무 담당자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 상습침수문제는 2012년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이후 우수저류조 설치, 압송관로 설치, 연속형트렌치 설치 등 다양한 사업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해결되지 않은 군산시민의 아픔과 애환이 담겨있는 곳으로, 사업 추진시점에 문제해결에 대한 설렘과 막중한 부담감이 있었음 ○ 수자원분야 최고의 기술자(시공사,용역사)들의 노력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여전히 상습침수 문제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잘 할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과 토목직 업무경력이 13년 정도인 일선의 직원이 혼자서 분석하는게 큰 효과를 나타낼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또한 갖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스스로 의심하고 만족하지 않으려고 함.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거 선배들에게 배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갖고 현장부터 조사하여 원인을 찾고자 하였음 ○ 우수관로는 CCTV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기존 현황과 상이한 부분은 직접 수정하여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에 대한 도면을 직접 만들어내고, 우수박스 내부는 직접 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해 도면화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상습침수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음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과정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중요하였기에 관련부서(수도과, 하수과, 건설과)와 관련기관(군산도시가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SKT,KT,LGU+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지하 현황을 새롭게 그려내 침수개선공사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과 실시설계용역 수행사의 과업 수행에 기간을 단축하는 등 큰 도움이 되었음

<p>극복 노력</p>	<p>○ 사업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원인분석을 완료하고보니, 침수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주요 방향성이 잡히게 되었고, 관련된 분석자료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실시설계 용역사에 제공함으로써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한발 나아가게 되었음</p>
<p>기타 에피소드</p>	<p>○ 사업지구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우기철 이후인 10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26년도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p> <p>○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은 10년이상 지속적인 상습침수로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빠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p> <p>○ 이에 '24년 7월 본사업에 착수하여 '25년 우기철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황속에서 '2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p> <p>○ 공사 추진과정에서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해 공사현장 수방대책과 안전조치를 동시에 수행하고, 야간 및 새벽시간 강수 집중시간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공사가 완료된 우수배제 분산구간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직접 확인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p> <p>○ 계속되는 강수로 인해 공사추진에 큰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차질없는 공정관리로 안전사고없이 공사를 추진할수 있었으며,</p> <p>○ 아울러, 구보건소 사거리 일원 통행차량과 보행자들이 장기간 불편함 속에서도 큰민원제기 없이 다같은 한마음으로 침수개선공사에 마음을 모아준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p>

'37년의 기다림' 규제를 넘어 건축유산의 문을 열다

-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방화지구 해제 -

소 속		도시재생과 재생기획계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p>○ 군산시 주요 관광자원인 근대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내화구조 제약이 있는 방화지구가 상충되는 문제로 근대건축물이 멸실 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해제 추진</p> <p>※ 실제로 2017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후 리모델링 등으로 근대 건축물이 12.5%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지정당시 312동 ⇒ 2024년 273동 (감 39동) - 주요 원인 : 오래된 목구조 사유건물의 증.개축시 내화구조 규제 (목재사용 불가)로 목구조 근대건축물 멸실 																														
	추진 내용	<p>□ 군산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도면 표시 번호</th> <th>지구명</th> <th>위치</th> <th>제한내용</th> <th>면적 (㎡)</th> <th>최 초 결정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정</td> <td>1</td> <td>방화 지구</td> <td>시가지 중심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td> <td>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td> <td>2,343,506</td> <td>전북고136호 ('87.10.31)</td> <td>-</td> </tr> <tr> <td>변경</td> <td>1</td> <td>방화 지구</td> <td>기존 시가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td> <td>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td> <td>2,086,086</td> <td>-</td> <td>감) 257,420</td> </tr> </tbody> </tabl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방화 지구	시가지 중심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43,506	전북고136호 ('87.10.31)	-	변경	1	방화 지구	기존 시가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086,086	-	감) 257,42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방화 지구	시가지 중심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43,506	전북고136호 ('87.10.31)	-																									
변경	1	방화 지구	기존 시가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086,086	-	감) 257,420																									
팀 노 력	<p>○ (부서 간 협업으로 상충 규제 해소) 1987년 지정된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위해 내화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2017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목조 건축물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며 두 제도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p>																															

- 도시재생과는 건축자산 보존의 필요성을,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적 타당성과 법적 절차를 담당하며, 두 부서는 상호 협의와 역할 분담을 통해 방화지구 해제 추진의 논리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
- **(해제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담당계장**은 방화지구 해제의 당위성을 시의회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북 도와의 협의 주도
- 또한, **도시계획과 담당계장**은 방화지구 변경 용역을 신속히 시행하여 입안 타당성을 마련했으며, 전북 도 도시계획 부서와의 공감대 형성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4년 12월 월명동 일원 25만7,420㎡ 방화지구 해제를 원안 통과시킴
- **(근대건축자산 보전 및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방화지구 해제로 목조 건축물의 보수·정비가 용이해져, 불법 보수 및 멸실 사례를 줄이고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존 가능
- 도시재생과는 건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경관 유지와 역사문화자산의 보전, 관광자원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위해 용역 추진중
-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는 방화지구 해제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업을 통해 근대건축자산 보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
-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적·정책적 혁신을 이뤄내며 군산시 구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p>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가능) 방화지구 해제 이전에는 내화자재(콘크리트, 석조 등) 사용이 의무여서, 목조 근대건축물의 증·개축이나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으나, 해제 이후 목조 건축물의 원형 보존과 정비가 가능해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자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 관광 활성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이 쉬워지면서, 군산 구도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으며, 관광객유치와 지역 브랜드 강화, 관광 인프라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주민 정주여건 개선) 건축 규제 완화로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주택을 보수·개량할 수 있게 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짐 ○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건축물 보존과 관광 활성화가 연계되어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재생 및 중복 규제 해소) 방화지구와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상충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도시 관리와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가능해짐
<p>업무 담당자</p>	<p>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p>	<p>【37년 동안 규제되었던 방화지구 해제를 위한 업무협약의 지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지구 해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전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의 공감 의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음 ○ 방화지구 해제에 대해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으며, 방화지구는 원래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내화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 시 화재 대응력 약화에 대한 소방당국의 신중한 입장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지구와 건축자산진흥구역의 규정이 상충되면서, 소방본부는 목조 건축물 보존과 화재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어려웠음
<p>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보전을 위해 목재 사용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는 소방서 측면에서는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았음 ○ 협의 과정에서 소방본부는 방화지구 해제 이후 대체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도시재생 측과의 세부 실행계획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어려움 발생 ○ 이처럼 전북소방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화재 안전과 건축 자산 보존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충돌,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이견 충돌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남
<p>극복 노력</p>	<p>【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지구 해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부서와 소방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해당지역이 조계지로 소방차 접근성 용이, 충분한 소화전 설치 등의 안전성을 강조했으며, 방화지구 지정당시 상업지역에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금회 해제지역은 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지정요건에 불부합하다는 점 등 관련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신뢰를 쌓음 ○ 또한, 서울시의 방화지구 해제 추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우리 시의 안전대책과 해제 논리를 더욱 보완하며 소방본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방화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출장길에서 시작된 규제 혁신, 월명동의 반전 드라마”

기타 에피 소드

- 월명동 출장길에 나설 때마다 눈에 띄게 사라지는 근대 목조 건축물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예쁜 옛 건물들이 자꾸 없어지고 새 건물만 들어설까?”라는 궁금증이 점점 커졌다. 그 궁금증을 따라가다 보니, 한쪽에서는 목조 건물을 지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목재를 쓰지 말라는 상반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상한 규제의 꼬임을 풀기 위해 도시계획과와 함께 힘을 합쳐 ‘방화지구 해제 TFT’를 꾸렸다.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며, 방화지구 해제라는 큰 숙제를 풀기 위해 행정절차 작업에 매달렸다.
- 그 결과, 마침내 방화지구가 해제되어 월명동의 근대 건축유산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장길의 작은 의문이 군산의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꺼지지 않는 심야의 불빛, 아이 걸을 지키는 안심길로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키움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

소 속		보건행정과 의약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필수 의료 사각지대 문제로, ○ 전주, 익산, 김제, 부안 지역은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군산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임. ○ 특히 군산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약 3만7천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경증 질환조차 원거리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응급실 과밀화 및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용 불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의료기관명	소재지	비 고
		대자인병원	전주시 덕진구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운영
		전주 다솔 아동병원	전주시 완산구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운영
		해맑은연합소아 청소년과의원	전주시 완산구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운영
		엔젤연합소아 청소년과의원	부안군 부안읍	토 08:30~18:00 일·공휴일 10:00~18:00
		믿음병원	김제시 금성로	월,화,목,금 18:00 ~ 익일 01:00 수 18:00 ~ 23:00 토·일·공휴일 09: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모델을 기획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며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및 응급실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했음 ○ 이는 '시민행복 안전 복지도시'라는 군산시 시정방침과도 부합하며 시민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필수과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추진내용

사업부문

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의료기관 의견 수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2025. 2.
- 사업대상 : 키움병원(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 1개소 선정)
- 운영시간 : 최소 운영시간 평일 18시~23시, 주말·공휴일 9시~18시 진료
- 사업내용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추진내용)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업 안내 공문 발송 : '23. 5.25.
-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 의견 제출(도 보건의료과) : '24.10.04.
-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16개소) 대상 야간·휴일 진료 의견 청취 및 사업설명 : '23. 5. 22.~10. 24.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책협의체 회의 건의사항 제출 : '24. 2. 21.
-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타 지자체(광주) 벤치마킹 : '24. 3. 5.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부터 업무 협약까지

○ (추진내용)

- 조례제정을 위한 임시회 간담회 실시 : '24. 4.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 '24. 5.
- 2025년 본예산 편성 : '24. 12.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고 : '24. 12. 26. ~'25. 1. 9.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협약 체결 : '25. 2. 27.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 '25 3. 4.~
- 병원 운영에 따른 약국의 야간 운영 협력체계 구축 : 2개소

팀노력

○ 사업 시행 전반의 실질적 협업 추진

- 지역 내 지속되던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라는 필수 의료 과제 해결을 위해, 팀원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함

○ 담당자별 협력 체계

담당자	A 계장	B 주무관
담당업무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업 기획 및 기반 조성 총괄	- 의료기관 선정 심의 및 협약 체결 실무 지원
공동업무	- 2025년 초, 지역 의료기관 선정 심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3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개시	

주요
성과

○ 계량적 성과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비 4억3천5백 확보
- 도내 14개 시·군 중 최초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소아 환자 진료역량 강화 및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인력 확보 (기존 소아청소년 전문의 3명→5명 확대)
- 운영실적

구분	기간	총 환자수	외래소아	외래성인	입원
3월 (28일간)	3.4.(화)~3.31.(월)	2,305	1,816	381	108
4월 (30일간)	4.1.(화)~4.30.(수)	2,428	1,893	434	101
5월 (30일간)	5.1.(화)~5.31.(토)	2,158	1,650	418	90
6월 (30일간)	6.1.(일)~6.30.(월)	1,981	1,492	401	88
누 계	3.4.(화)~6.30.(일)	8,872	6,851	1,634	387

➡ 군산시 소아청소년* 약 5.5명당 1명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이용

* 군산시 소아청소년 인구37,356명('25년 6월 말 기준)

○ 비계량 성과

- 관내 소아청소년 소아공백 해소 및 필수의료(소아응급) 환경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소아청소년 보호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
- 응급실 혼잡도 완화 및 진료 대기시간 감소

구분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이전 (As is)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이후 (To be)
진료환경	야간·공휴일 진료기관 부재	공공심야 진료체계 구축
의료이용	응급실 과잉 이용, 타지역 진료의존	외래진료 및 관내 진료가능
의료 질 증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비용부담	높은 응급실 이용료	상대적으로 낮은 외래 진료비
시민 체감	양육 불편 ·불안증가	정주환경 개선-인구정책 연계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타과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
-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환자 감소 및 소득 감소

업무담당자

극복 노력

-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음. 초기 검토 당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으나, 지역 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라는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수차례 방문·소통함으로써 의료기관과의 신뢰를 쌓고, 결국 일부 기관의 동참 의사를 이끌어내며 사업의 첫걸음을 뚫 수 있었음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음. 또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였음.
- 특히 2024년 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평시에도 안정적인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청, 보건소, 광주기독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군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모델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기타
에피
소드

- 2025년 6월, 전북도 주관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를 출품하여, 총 23건의 사례 중 상위 6건에 선정되어 현장 발표의 기회를 얻었음.
발표 이후 심사위원들로부터 "이 사례는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의 성과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적합하다는 외부의 공정한 인정을 받은 것이며, 공직자의 문제인식, 실행력, 방향성에 대해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더불어, 최근 부산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군산시는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는 의원 질의가 있을 만큼 본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음.
실제로 부산시 관계 부서로부터 군산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직접 문의를 받았음.
- 아울러, 머니투데이 계열의 시사매체 『더리더(The Leader)』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정책을 매달 한 곳씩 선정해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2025년 4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로 모범사례에 선정되어 현장 인터뷰 및 취재가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정책의 우수성과 파급력을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

내 집 앞 눈 치우기, 주민 참여로 제설 효과 극대화

소 속		수송동 행정민원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경) 눈이 내린 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빙판길이 될 수 있으므로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시급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함 ○ (현 황) 하지만 막상 눈을 치우려고 해도 제설 삽 등 간단한 제설 도구를 구하지 못해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를 구입한다 하여도 제설도구를 개인이 1년 동안 보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구체화함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제설함 설치 개소수 : 30개소 (버스승강장 및 전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 도로변 ○ (사업시기) 2024. 11. ~ 2025. 2. 15. ○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제설함 안내판 : 개소당 1개 - 제설삽 : 1~2개/개소 - 제설넉가래 : 1~2개/개소 - 염화칼슘 : 2포/개소 ○ 사업비 : 1,050천원(안내판 제작) (*사업비 지출내역, 안내판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 포맥스 폼보드 3T, 400×300



업무담당자	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1. 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착안 및 사업비 사용계획 - 제설삽, 제설넉가래 페인트 마킹작업(*사진참조) ○ (담당2.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계획, 운영 및 홍보 등 - 제설함 설치 및 유지관리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설도구를 언제·어디서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을 반영한 사례임 ○ 적은 사업비로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 초기 실시 30개소에 설치한 결과 시민 만족도가 좋아 25년~26년 폭설 대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 실시 계획 ○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 승강장에 대한 제설함 안내판 부착 협조로 협업 부서 간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제설함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나 건물벽에 타공 등으로 인한 구조물 훼손을 수반하게 되어 제설함 설치 장소 선정의 어려움 ○ 제설 도구를 결속시키는 고리가 접착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쉽게 이탈되고, 부착면에 고리를 고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자율제설도구 설치함이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어 분실·파손 우려가 컸음.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상가 밀집 지역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건물부착은 건물주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고 대신 버스 승강장 또는 한전 전력함에 설치하여 문제 해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설도구함 설치 고정 고리는 플라스틱 재질에 양면 접착 형식으로 제작되어 설치 시 가스 토치로 접착면을 가열한 뒤 부착함으로써 반영구적 접착을 구현하였음 ○ 자율제설도구 다중이용시설인 공공장소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회의 등 자생단체 회의 등 홍보를 통해 전체 설치 중 1개 분실에 그쳐 시민의식 고취에 감사함
	<p>기타 에피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제설함 제작 및 설치, 제설도구 구입비 등 인접 지역에서 운용·관리에 대한 문의 ○ 제설함을 설치한 구역의 경우 제설에 대한 민원요구 사항 없음 ○ 제설 삽·넙가래에 페인트 마킹을 직접 제작 실시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음. ○ 내집 앞 눈치우기의 법적 또는 실천적인 의미를 모르는 시민에게 “제설작업을 시민에게 시키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으나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결과,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 실시해 줄 것을 요청받음.

지동이, 직원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다 !

소 속		관광진흥과 축제지원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문화관광축제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캐릭터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홍보 및 운영에 있어 실효성있는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축제 홍보시 오프라인 중심을 탈피,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 ○ 기존 지자체 기념품의 낮은 심미성과 활용도 문제를 답습하지 않는, 실용성과 창의적 디자인을 강화한 기념품 개발 필요 ○ 축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의 부진한 활용문제를 개선, 축제 홍보 강화를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 개최 전, 공식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전 홍보 강화를 위해 축제 캐릭터 기반 무료 이모티콘(16종) 제작·배포 추진, 이를 통해 축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기여 ○ 마스코트 '지동이', '지영이'를 활용한 8종 이상의 기념품 디자인을 구상·제작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사전 홍보물로 활용 ○ 축제 및 행사 추진시 캐릭터 적용 홍보물 제작을 통해 시민의 관심 유도 및 축제브랜드에 대한 집중도 향상 노력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마스코트 '지동이'를 활용한 무료 이모티콘 16종을 제작, 총 25,000개 배포한 결과 카카오톡 공식 채널 구독자 수가 9,000명 → 25,000명으로 단시간 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이모티콘을 직접 제작하여 디자인비용 약 10,000천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 <p>※ 타 지자체 이모티콘 제작 용역 계약 현황</p>

지자체명	계약명	제작	배포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군산시	군산시간여행축제 카카오 채널 활성화 용역	X	O	12,000	2024-08-06
강화군	관광 캐릭터 및 이모티콘 제작 용역 발주	O	O	53,350	2025-05-02
성남시	소셜캐릭터 성나미 이모티콘 제작	O	X	9,118	2024-10-31
강남구	강남구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2종)	O	X	23,550	2025-05-09

○ 마스크트 캐릭터 기반 디자인 기념품 8종을 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리워드로 제공한 결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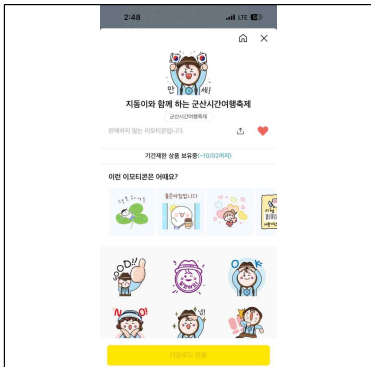
○ 홍보물 및 설치물 디자인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 및 제작 소요 시간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발주 시 디자인 수정 횟수 및 작업물 내용에 따라 디자인 비용 통상 50~350만원정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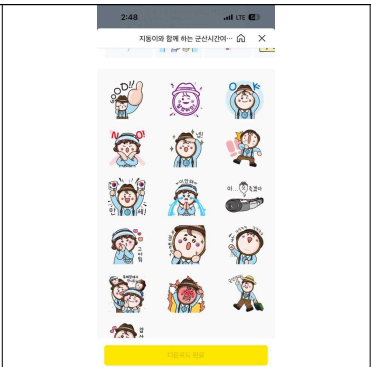
○ **약 8개월 이상 소요된 움직임은 이모티콘 16종**


-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모티콘 1종당 최대 20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총 16종 제작 시 최대 320장의 일러스트 작업이 요구되는 고난도 작업량

○ **대기업(카카오)의 유선상 서비스 불가로 소통의 어려움.**

- 본 작업은 카카오와의 1:1 직접 진행 방식이며, 시스템상 유선 응대가 불가하여 온라인 문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소통 가능. 또한, 해당 분야 전공자가 한정되어 있어 정보 확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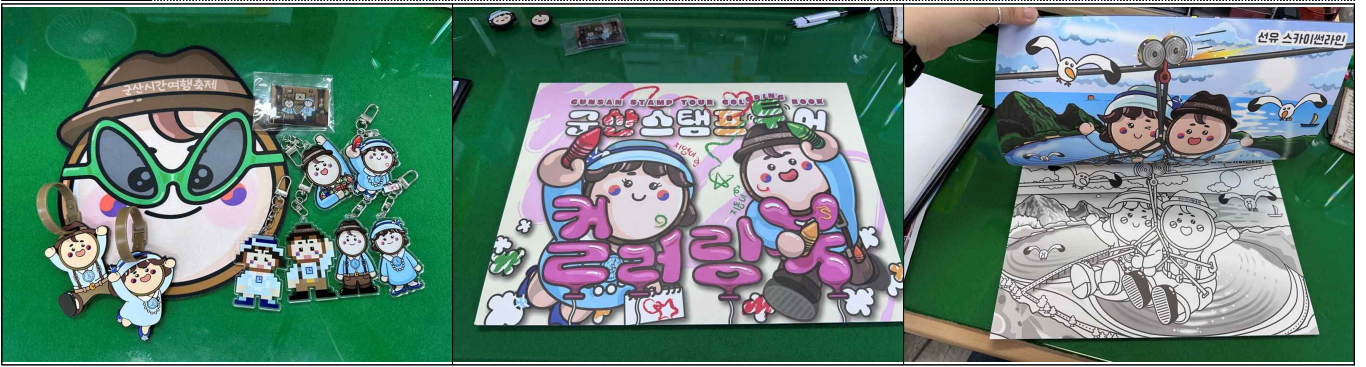
업
무
담
당
자

추진과정
에서의
어려움

	<p>○ 타부서 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에서 디자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타 부서의 디자인제작 요청 증가 및 이에 따른 업무량 부하 발생 -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수시로 디자인관련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옴
<p>극복 노력</p>	<p>○ 카카오톡 공식 제작가이드의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업무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티콘 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 발생. 확인 결과, 공식 제작 가이드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변경 요청 후 문제 해결 - 타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업무 가중 해소 - 비전공자도 활용 가능한 간편 제작 플랫폼의 사용법 안내 및 디자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p>기타 에피소드</p>	<p>○ 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및 기념품 제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투데이 군산' 기자의 요청으로 인터뷰 진행. ⇒ '업그레이드 군산시' MZ 홍보우먼이 뒀다...市 관광진흥과 강다운 씨</p>

참고1

축제 마스코트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8종



참고2

투데이 군산 인터뷰 내용

업그레이드 군산사 MZ 홍보우먼이 됐다...市 관권진흥과 강다운 씨

10월 군산시민여름축제 앞두고 강다운씨가 홍보 담당자를 맡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맡고 있다. 인터뷰에 앞서 강다운씨가 소개한 홍보 활동은...

10월 군산시민여름축제 앞두고 강다운씨가 홍보 담당자를 맡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맡고 있다. 인터뷰에 앞서 강다운씨가 소개한 홍보 활동은...

10월 군산시민여름축제 앞두고 강다운씨가 홍보 담당자를 맡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맡고 있다. 인터뷰에 앞서 강다운씨가 소개한 홍보 활동은...

참고3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포스터 작업

2024 Christmas in Aqoupa

2024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2024. 8. 25(일) 오후 3시 ~ 9시

- ◆ 무대공연
- ◆ 체험행사
- ◆ 프리마켓
- ◆ 30초 단편 영화제 시상식

10:00

프레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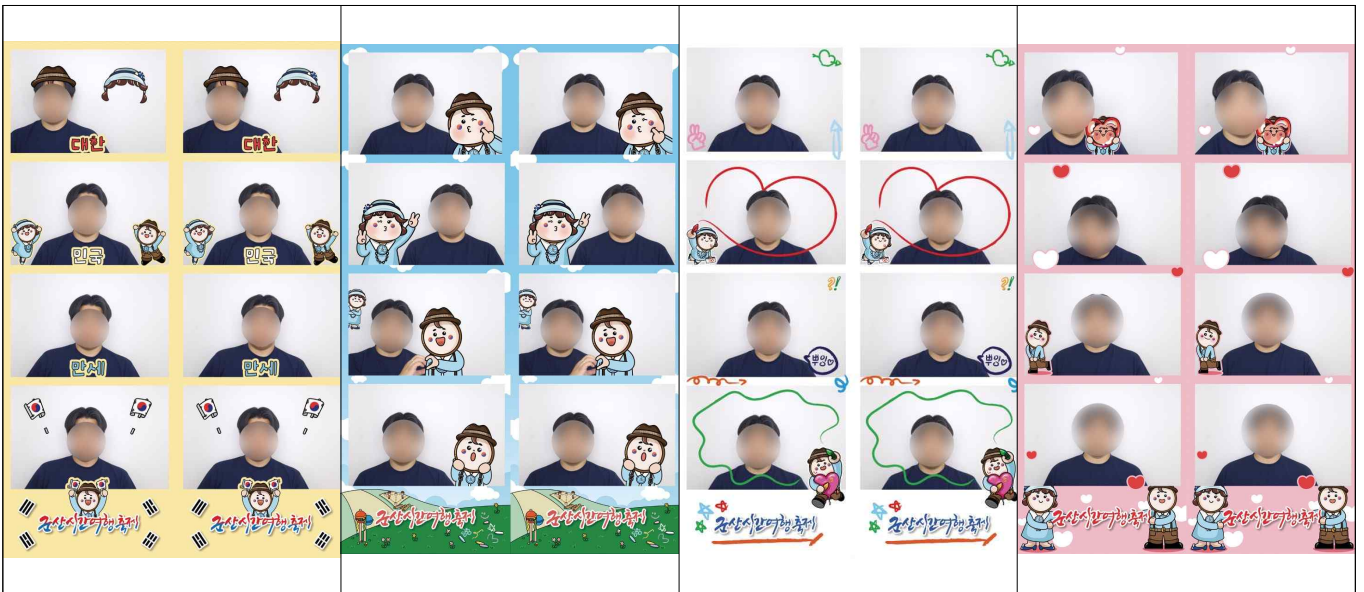
▲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군산시

올해 축제는 25일 오후 3시부터 레트로 체험프로그램과 프리마켓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8월의 크리스마스 군산 굿즈 공모전'에 참여한 제품들이 처음으로 공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 | pieces of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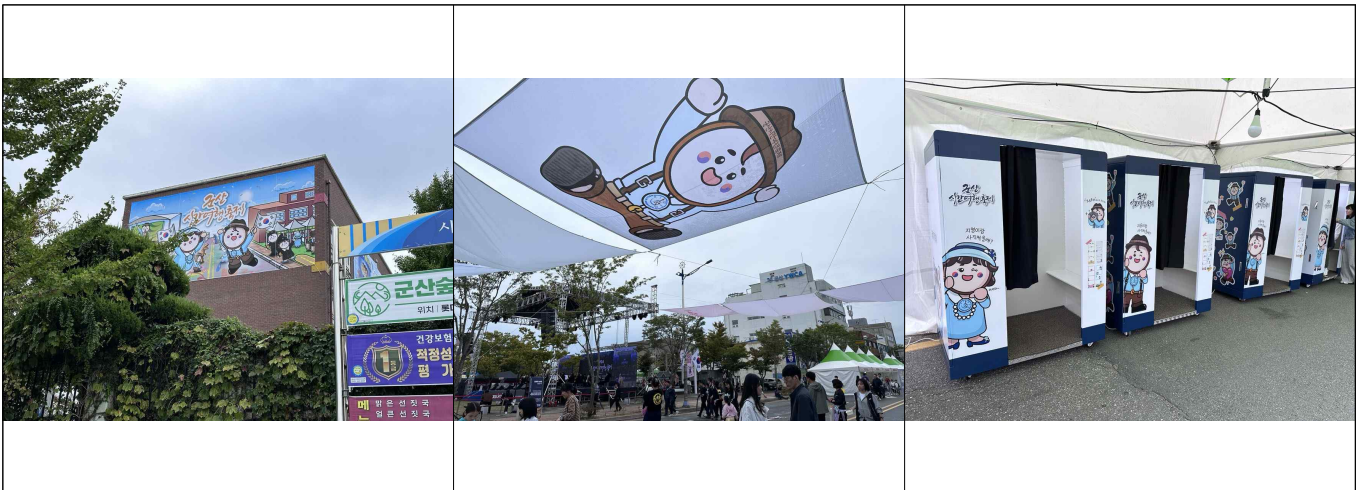
참고4

축제 체험프로그램 - '모던 네컷 in 군산' 디자인 작업



참고5

축제장 현장에 설치된 조형물 디자인 작업



역전종합시장 새벽장 통학로 확보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소 속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건설과 도로관리계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 역전종합시장 주변 새벽장 노점으로 인한 통학 어린이 안전사고 노출
	추진 내용	○ 새벽장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매일 07:00부터 어린이 통학시간 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지속적 단속을 추진함에 따라 군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새벽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주요 성과	○ 2025. 01. 01.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중앙초등학교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함(진행중)
업 무 담 당 자	추진과정 에서의 어려움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시 군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새벽장의 명맥을 위협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보단 상인 및 이용객들과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필요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가 심각함
	극복 노력	○ 불법주정차 단속반은 새벽시간대부터 반복되는 계도 및 단속 업무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고, 일부 상인 및 운전자와의 마찰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은 원칙과 배려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음 ○ 특히 민원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위반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분산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있으며, 반복 계도 대상에 대해서는 비난보다는 설명과 설득 중심의 소통으로 접근하고 있음
	기타 에피 소드	○ 지속되는 계도 단속에 피로함을 느끼는 도중 학부모 및 통학 어린이, 또한 도로 이용객의 감사인사에 공적 사명감 및 행정 보람을 체감